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시흥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K-시흥시! 어울림 축제’...세계 문화교류의 장



시흥시는 지난 5월 21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K-시흥시!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윤석경 오인열 박춘호 서명범 이봉관 시흥시의원, 장대석 이동현 경기도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부인 조미선 여사,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장, 박결 시흥시의국인복지센터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시흥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어울림축

제는 예전과 같이 풍물패의 길놀이와 외국인주민 100여명의 세계의상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다.

모국의 전통의상을 멋지게 차려입은 참가자들은 미관광장 옆 세계로마트 주변을 행진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기념식에서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에는 6만 6천여명 외국인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주민이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희 의장은 “세계가 하나이듯 시

흥시에서 사는 내외국인 모두가 하나”라며 “외국인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16명의 시의원들이 늘 함께 손잡고 가겠다”고 격려했다.

박결 센터장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축제는 내외국인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며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은 오늘의 이 열기보다 뜨겁고 소중하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및 홍보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펼쳐져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먼저 행사장 곳곳에는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30여개의 부

스가 운영됐다. 의료 지원, 건강 안전 홍보, 일자리 및 교육 상담 등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됐다.

불거리도 빠질 수 없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등 8개국 이주민들이 전통춤과 공연을 선보였으며 국악 인기가요밴드 등 한국의 춤과 노래도 펼쳐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중국 출신 이주민은 “자녀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 구경할 것도 먹을 것도 많아 즐겁다”며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흥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의국인복지센터와 시흥시가족센터가 주관했다.

이지은 기자



병원 진료 받을 때 신분증 가져가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공정성 확보

〈사례〉 2015년,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외국인 A는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예요. 처음에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몸이 안좋아지자 입원할 때도 사용했어요.

외국인 A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사용한 B의 건강보험은 46회에 달했어요. 이 사실은 외국인 B가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갔다가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신고하게 됐지요.

결국 외국인 A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악용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예요.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도용사례는 연평균 3만 5천건에 달해요.

병원에 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 등이예요.

다만, 19세 미만 아이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또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은 필요없어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에 문의할 수 있어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우측〉

파파야스토리

Giờ đây, khi đến bệnh viện hoặc phòng khám nhận điều trị, cần mang theo giấy tờ tùy thân

<Tình huống> Năm 2015, người nước ngoài A không đủ điều kiện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đã bắt đầu sử dụng số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B mà anh tình cờ biết được để nhận quyền lợi bảo hiểm y tế tại một bệnh viện. Đây là việc lợi dụng thực tế là các bệnh viện chỉ yêu cầu cung cấp số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mà không cần xuất trình giấy tờ tùy thân. Ban đầu, A chỉ sử dụng số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B khi điều trị ngoại trú, nhưng khi tình trạng bệnh trở nên trầm trọng hơn, A cũng đã dùng thông tin của B để nhập viện. Người nước ngoài A đã sử dụng bảo hiểm y tế của B 46 lần trong 4 năm từ tháng 9/2015 đến tháng 6/2019. Sự việc này được phát hiện khi người nước ngoài B đến Trung tâm tế cộng đồng và bất ngờ khi biết tin mình đang nhập viện nên đã trình báo với cơ quan chức năng. Cuối cùng, người nước ngoài A bị kết án 10 tháng tù vì vi phạm Luật Bảo hiểm y tế và phải ngồi tù.

Bộ Y tế và Phúc lợi (Bộ trưởng Cho Gyu-hong) cho biết chính sách bắt bắt buộc xác minh danh tính đối với bảo hiểm y tế sẽ được triển khai từ ngày 20/5. Theo đó, khi khám chữa bệnh theo chế độ bảo hiểm y tế tại các bệnh viện, phòng khám, các bạn cần phải xác minh danh tính bằng CMND, v.v., thì mới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bảo hiểm y tế.

Hiện tại, ở hầu hết các bệnh viện, các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quyền lợi bảo hiểm chỉ bằng số CMND mà không cần xác minh danh tính riêng khi sử dụng bảo hiểm y tế. Thế nhưng lại xảy ra trường hợp những người không đủ điều kiện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lợi dụng vào đó và sử dụng tên của người khác để nhận quyền lợi bảo hiểm y tế, v.v.

Theo đó, Luật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đã được sửa đổi, yêu cầu xác minh danh tính nhằm đảm bảo sự công bằng của chính sách bảo hiểm y tế và ngăn chặn vấn đề lạm dụng. Số vụ chiếm dụng được Công đoàn bảo hiểm y tế phát hiện trong 5 năm qua đã đạt mức trung bình 35,000 vụ/năm.

Những giấy tờ tùy thân có thể xuất trình khi đến bệnh viện bao gồm ▲ Chứng minh thư ▲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 Bằng lái xe ▲ Thẻ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 Thẻ bảo hiểm y tế di động (ứng dụng) hoặc mã QR.

〈중략,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到医院・诊所就诊时请携带身份证

保健福祉部实行健康保险义务化确认本人制度... 未满19岁者可免除

〈事例〉2015年, 没有健康保险资格的外国人A利用偶然认识的B的外国人登记号码, 开始在医院享受健康保险优惠。恶意利用了医院不用出示身份证, 只告知外国人登记号码即可的做法。刚开始只在接受门诊治疗时使用了B的外国人登记号码, 但是身体不舒服, 住院的时候也使用了。外国人A从2015年9月到2019年6月4年间使用B的健康保险达到了46次。这一事实是外国人B某去保健所时, 听到正在住院的消息后吓了一跳, 才举报的。最终外国人A因违反健康保险法被判处有期徒刑10个月, 被关进监狱。

保健福利部长官赵圭弘表示, 将从5月20日开始实行健康保险义务化确认本人制度。因此在医院和医院接受适用健康保险补助的诊疗等时, 必须通过身份证等确认本人, 才能适用健康保险补助。

目前大部分医院在确认健康保险时, 无需经过本

人确认程序, 只要出示身份证号码等就可以享受保险优惠。因此健康保险无资格者盗用他人名义获得健康保险补助等恶意利用制度的事例不断发生。

对此, 为了防止恶意利用事例, 确保健康保险制度的公正性, 以义务化确认本人为内容, 修改了国民健康保险法。最近5年间, 健康保险公团揭发的盗用事例年均达3万5千件。

去医院时可出示的身份证有▲身份证▲外国人登记证▲驾驶证▲残疾人登记证▲手机健康保险证(APP)或QR码等。

但是未满19岁的孩子不用出示身份证, 像以前一样告诉身份证号码就可以了。另外如果出示身份证后, 接受医院治疗后6个月内再次访问医院时, 则无需出示身份证。去药店的时候也不需要身份证。

详细事项可以咨询国民健康保险公团网站或呼叫中心(1577-1000)。

파파야스토리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가족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가정의 달, 다양한 가족에 마음 전달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 마음 나누기 후원품 전달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 능곡분관은 지난 5월 23일 시흥보건소 능곡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와 연계, '가정의 달 맞이 마음 나누기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가정의 달 맞이 마음 나누기 후원품 전달식'의 나눔 주인공은 (주)디와이코스메틱으로,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1,000개를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에 전달했다.

시흥보건소 능곡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장은 "오늘과 같이 귀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시흥시 관내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연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보건소 능곡행복건강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성

장을 이루고, 지역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경험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 관계자는 "이날 전달된 후원품을 능곡동 및 정왕동 지역 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외에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희망드림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 진행 사업 또는 후원 관련 문의는 031-319-7997 또는 031-432-7994(능곡분관)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시해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은 6월부터 영유아기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 역할 학습 및 양육 상담을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부모교육은 시립배곧씨밋플레이스C2어린이집과 연계해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행복한 육아를 위한 감정소통 레시피'란 주제로 마련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감정코칭 대화법을 활용한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안정감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흥시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시흥시 인구특성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이다. 하반기에 진행할 다문화가족 및 맞벌이가족 대상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city.familynet.or.kr) 또는 전화(070-4236-74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해요

시흥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격차 및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 중 7~18세(2006~2017년생) 한국 국적 자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으로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7월(5~6월 신

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에 교육활동비(포인트)가 지급된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자격증 지원,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학업 및 진로활동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전화 예약 후 시흥시가족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안내는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경임 센터장은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신청자 거주하는 관할동 담당자(070-7119-0424<정왕관-정왕동, 거북섬동, 죽율동, 배곧동, 월곶동>, 070-4107-8078<중부관-군자동, 능곡동, 장곡동, 연성동, 목감동, 신현동>, 070-4107-8079<신천관-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매화동>)에게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능곡도서관, 일상 활력 더할 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

시흥시(시장 임병택) 능곡도서관은 6월에 '예술(미적 작품 창조 활동)'을 주제로 한 성인 치유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성인들의 일상에 긍정의 힘과 활력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이끼 정원(테라리움) 만들기와 손뜨개 만들기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자들은 작품을 완성하면서 긍정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6월 11일부터 12일(오전 10시~12시)에는 책과 함께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감성 수제 작품을 완성하는 '손뜨개 카드 지갑' 만들기가 진행된다. ▲6월 18일(오전 10시 30분~12시)에는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현재 감정을 읽고 치유의 시간을 갖는 '나만의 이끼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강좌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책과 관련된 지적 대화와 소소한 행복감을 나누며 '나만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3일부터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시흥시 능곡도서관 031-310-2551 송하성 기자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xin cấp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cần phải xin giấy giới thiệu tiến cử từ Tỉnh trưởng 숙련기능인력비자 도지사 추천 신청



Hầu hết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rên toàn quốc, trong đó có Tỉnh Gyeonggi, Tỉnh Chungcheong, Tỉnh Gyeongsang, Tỉnh Jeolla, v.v., hiện đang tuyển chọ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ỉnh trưởng tiến cử để chuyển đổi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E-7-4).

Visa E-7-4 là gì?

'Dự án chuyển đổi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E-7-4)' là dự án cấp visa lưu trú dài hạn cho lao động phổ thông (E-9), thuyền viên (E-10), hoặc tìm việc (H-2) đã làm việc lâu năm và có tay nghề cao tại Hàn Quốc.

Visa E-7-4 có gì tốt?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E-9 chỉ có thể lưu trú tối đa 4 năm 10 tháng, sau đó phải về nước thì mới có thể tái nhập cảnh. Tuy nhiên, nếu được cấp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có thể gia hạn visa, không cần về nước và có thể mời vợ/chồng và con cái chưa thành niên sang Hàn Quốc sinh sống.

Làm thế nào để được cấp visa E-7-4?

Để có chuyển đổi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cần đáp ứng được các điều kiện về thời gian lưu trú, thu nhập trung bình trong hai năm qua,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độ tuổi được tính theo từng hạng mục theo chính sách lao động lành nghề (K-point E74) của Bộ Tư pháp và cần đạt được số điểm từ 200 trở lên trên thang điểm là 300. Nếu được Tỉnh trưởng giới thiệu tiến cử thì sẽ có thể được cộng thêm 30 điểm nên đây là một lợi thế lớn.

Điều kiện của visa E-7-4 là gì?

Điều kiện khi chuyển đổi visa sẽ có đôi chút khác biệt tùy thuộc vào từng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Tỉnh Gyeonggi, có các điều kiện như ▲ Làm việc tại một doanh nghiệp trong Tỉnh từ 1 năm trở lên kể từ ngày nộp đơn ▲ Duy trì thời gian lưu trú tại Tỉnh Gyeonggi từ 2 năm trở lên sau khi chuyển đổi visa ▲ Đáp ứng một trong những điều kiện sau (△ Thành tích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Nhận được bằng khen △Giới thiệu của giám đốc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 Được giới thiệu tiến cử từ Thị trường hoặc Quận trưởng), v.v.

Đối với Tỉnh Jeollanam, có các điều kiện như ▲ Trong 10 năm qua, đã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ừ 4 năm trở lên bằng visa E-9, E-10 hoặc H-2 ▲ Được giới thiệu tiến cử từ doanh nghiệp, nơi đã làm việc từ 1 năm trở lên kể từ ngày nộp đơn ▲ Ký hợp đồng lao động trong 2 năm tiếp theo với mức lương hàng năm từ 26 triệu won trở lên ▲ Đạt từ cấp 2 trở lên trong Kỳ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Làm thế nào để đăng ký?

Năm nay, chỉ tiêu phân bổ cho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rên toàn quốc là 5,500 người, trong đó Tỉnh Gyeonggi có thể giới thiệu tiến cử 2,048 người, đây là con số lớn nhất cả nước. Số lượng người được tiến cử giới thiệu ở Tỉnh Jeollanam là 308 người.

Người nước ngoài đủ điều kiện chuyển đổi visa lao động lành nghề cần điểm cộng từ việc nhận giới thiệu tiến cử của Tỉnh trưởng có thể đăng ký tại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TP hoặc Quận, Huyện nơi doanh nghiệp đặt trụ sở.

〈한글 기사 29면〉

PapayaStory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ต้องยื่นขอคำแนะนำจาก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ในมหานครส่วนใหญ่ทั่วประเทศ เช่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งหวัดชุงชอ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ชัง และจังหวัดจอลลา กำลังรับสมัค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แนะนำโดย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เพื่อเปลี่ยนเป็น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E-7-4)

วีซ่า E-7-4 คืออะไร?

"โครงการเปลี่ยน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E-7-4)"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เปลี่ยนแรงงานซอสัต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งสมทักษะ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 ด้วยวีซ่ามา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ห้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E-7-4) ซึ่งเป็นวีซ่าที่อนุญาตให้พำนักได้ในระยะยาว เช่น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ไม่ใช่ฝีมืออาชีพ (E-9), การจ้างงานลูกเรือ (E-10), 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เยี่ยมเยียน (H-2) เป็นต้น

วีซ่า E-7-4 มีข้อดีอย่างไร?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วีซ่า เช่น E-9 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ได้สูงสุดไม่เกิน 4 ปี 10 เดือน และจำเป็นต้อง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แล้วกลับเข้า ประเทศให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ากได้รับวีซ่า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จะสามารถต่ออายุวีซ่าได้ โดยไม่ต้อ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และสามารถ เชิญคู่สมรสและบุตรที่ยังไม่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เข้ามา

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ได้

ขอวีซ่า E-7-4 อย่างไร?

การเปลี่ยน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เป็นไปได้เมื่อ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 รายได้เฉลี่ยในช่วง 2 ปีที่ผ่านมา,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 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อายุ ได้รับการให้คะแนนตามสัดส่วนเงื่อนไขการแปลงเพื่อขยาย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 (K-point E74) 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และได้คะแนน 200 ขึ้นไป จากคะแนนเต็ม 300 คะแนน การได้รับวีซ่า E-7-4 นั้นมีข้อได้เปรียบมากเนื่องจาก จะได้รับคะแนนเพิ่มอีก 30 คะแนน 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แนะนำจาก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เงื่อนไขของวีซ่า E-7-4 มีอะไรบ้าง?

เงื่อนไขในการเปลี่ยนวีซ่าจะ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เล็กน้อยขึ้นอยู่กับ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ของมหานคร ในกรณี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 ทำงานที่บริษัทที่ตั้ง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ป็นเวลามากกว่า 1 ปี ณ วันที่สมัคร ▲ รักษาการพำนัก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2 ปีขึ้นไป หลังจาก การเปลี่ยนวีซ่า ▲ ตรง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ข้อใดข้อหนึ่งต่อไปนี้ (△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อาสาสมัคร △การได้ใบประกาศเกียรติคุณ △ได้รับการแนะนำจากผู้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วัสดิ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ได้รับการแนะนำจากนายกเทศมนตรีหรือนายอำเภอ) เป็นต้น

ในกรณีจังหวัดจอลลาเหนือ ▲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 4 ปีขึ้นไป ด้วยวีซ่า E-9, E-10, H-2 ในช่วง 10 ปีที่ผ่านมา ▲ได้รับการแนะนำจาก บริษัทที่ทำงานมานานกว่า 1 ปีขึ้นไป ณ วันที่สมัคร ▲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ในอีก 2 ปีข้างหน้า โดยมีเงินเดือนประจำปี 26 ล้านวอนขึ้นไป ▲ได้ระดับ 2 ขึ้นไป ในการทดสอ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สมัครอย่างไร?

ในปีนี้อควดาที่จัดสรรให้กับหน่วยงาน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ในเขตมหานครทั่วประเทศมีจำนวนทั้งสิ้น 5,500 คน ซึ่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สามารถ แนะนำได้ 2,048 คน ซึ่ง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ที่สุดในประเทศ จำนวนคนที่แนะนำในจังหวัดจอลลาเหนือคือ 308 ค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สิทธิ์เปลี่ยน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ที่ต้องการคะแนนเพิ่มเติมตามการแนะนำของ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แผน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มืองหรืออำเภอที่บริษัทตั้งอยู่

〈한글 기사 29면〉

PapayaStory

신청서류

공동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추가서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해당

- 하절기** 전기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해당

-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해보세요



안내기관	전화번호	안내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제도 및 사용내역 확인
읍·면·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안내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화상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4)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처 금액 전액이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이월됨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참고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동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가족, 친족) 가능
 -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변경(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이 없으며, '24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 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을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방법

요금차감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에 신청(실물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실물카드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하절기 지원불가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자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공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타인에게 판매 및 대여 불가
 - 냉·난방 목적 외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 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유의사항
 -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간 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로 결제완료여야 지원 가능(남은 잔액은 소멸)

맞춤형 가족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운영

시흥시가족센터, 7개 가족서비스 위기가족지원사업 통합 지원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 가족별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족상담사업, 무료법률상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집단상담 등)와 지속적인 사례관리(사업지원인력 파견,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며, 질병.위기 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대상에게 긴급위기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분리된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서비스’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대상 병원 및 양육 용품 지원하는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사업이 시흥시 최초로 운영된다.

고경임 센터장은 “시흥시 최초로 운영되는 면접교섭서비스와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시흥시 가족들의 돌봄과 양육의 곁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이외에도 시흥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문의는 031-317-4523(가족상담팀), 070-4235-8262(통합사례관리팀)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오이도 전통수산물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이도 전통수산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오이도 전통수산물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43곳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매주 최대 1인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총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주말 특별전으로 운영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발간

시흥시, 각종 정보.지식...3개 언어로 번역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정보와 지식을 3개 언어로 번역하여 담은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 어서와 시흥은 처음이지?>를 최초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총 70쪽 분량으로, 휴대하기 편한 소책자 형태다. 시흥시는 시화호 30주년 등 시흥시 상징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 기획 및 내용 구성에 힘썼다. 특히 책자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또한 높였다.

책자에는 ▲시흥시 소개 및 즐길 거리 ▲입국 및 체류 정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등을 포함한 생활정보 ▲의료, 교육, 취업 정보 ▲연령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역화폐 시루 등 시흥시민으로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시흥시는 지역 외국인 구성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3개 언어로 총 900부를 제작했다. 책자는 민원여권과 등 본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주민을 지원.협력하는 유관기관에 배부됐다.

책자는 시흥시 공식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시정소식란의 시정간행물-기타책자 또는 분야별정보-복지-글로벌 인포메이션(Global Information)‘에서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임동현 시흥시외국인주민과장은 “시흥시 최초의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책자가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외국인주민 생활안내 어서와~ 시흥은 처음이지?



한국어
KOREAN



영어
ENGLISH



중국어
CHINESE



베트남어
VIETNAMESE



시흥시청 외국인주민과
TEL 031-310-3009 FAX 031-380-5328

시흥, 다양한 교육으로 앞서가요

다문화가족도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 대박!

#시흥교육캠퍼스 썩(SSOC)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교육캠퍼스 썩(SSOC)을 통해 시흥시민들을 위한 매월 색다른 주제의 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썩(SSOC) 화상학습은 아이와 함께하는 만들기 강좌, 타일공예,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강좌와 공간정리법, 기후위기 대응법 등 트렌드에 맞는 특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2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허브볼 만들기’와 ‘펫 마사지’ 강의를 열어 요즘 반려동물을 또 다른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6월엔 건강하게 나이들기(Well-aging) 테마에 맞춰 몸과 마음을 위한 요가명상, 전신 순환을 위한 아로마오일 만들기 강의를 운영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시흥교육캠퍼스 썩’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App) 스토어에서 ‘시흥교육 썩’ 검색, 설치 후 ‘화상학습’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평생학습과(031-310-2532)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그림책 플라워 테라피

시흥시 월곶도서관은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성인 대상 꽃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림책 플라워 테라피’를 문화교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과 꽃을 접목해 치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회차마다 그림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꽃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https://lib.siheu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료비는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강좌 내용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월곶도서관(031-310-5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다다 놀이터’ 놀며, 배우자!

시흥시는 북부권 및 은계지구 활성화와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대야권 특화사업’의 하나로 ‘다다

다 놀이터’를 운영한다.

‘다다다 놀이터’ 프로그램은 자격증, 교양·지역나눔, 실용과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시흥시민 및 관내 직장인 830여 명을 모집 중으로, 프로그램 회차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마련된 ‘자격증’ 프로그램은 7월부터 10월 2일까지 대야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독서심리, 미술심리,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양·지역나눔 프로그램은 8, 9월 중 대야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커피 인문학 특강이 마련돼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실용과정은 ‘소래 요리놀이터’를 통해 다양한 요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30분 만에 똑딱! 홈파티 테이블 ▲캠핑 감성 손쉬운 안주 한 상 ▲20분 컷, 그림 같은 한끼 집밥 ▲집에 있는 도구로 똑딱! 엄마표 소풍 가방 총 4개 과정이 있으며,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소래너나들이에서 진행된다.

젊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역사로 배우는 어린이 인권 ▲시흥명소 어반 수채화 그리기 ▲웰니스 테라피 요가 ▲말랑과 꿀벌 이야기 ▲나도 인플루언서 ▲엔틱접시 만들기 ▲홍보의 부채와 편지 ▲스모어쿠키 만들기 ▲퍼스널 향자아 찾기 ▲페이퍼아트&캘리그래피 총 10개 과정이다. 5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수업 장소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르다.

이번 교육에는 시흥시 북부권 및 은계지구 소상공인이 직접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은 홍보물의 큐아르(QR)코드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별도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강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 및 시흥시 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https://www.siheung.go.kr/edu>)을 통해 확인하거나 ☎베케이션(010-8920-1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하계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해요

정왕어린이도서관, 8월까지 3개월간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 정왕어린이도서관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계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구별 한 가족’, ‘음식 예술(푸드아트)과 만난 지구촌 문화유산 여행’ 2개 프로그램과 ‘다름이와 틀림이’라는 다문화 연극 행사를 진행한다.

정왕어린이도서관은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매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어린이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2회를 추가로 마련했다.

‘지구별 한 가족’은 어린이들이 세계 문화에 관한 그림책을 읽고 만들기 및 지도 그리기 등 흥미로운 체험형 독후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6회 운영한다. ‘푸드아트와 만난 지구촌 문화유산 여

행’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3~6학년) 수업을 오전(9시 20분~11시 20분)과 오후(11시 30분~13시 30분)로 나눠 각 4회씩 총 8회 진행한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 각 문명의 대표적 음식을 만들며 지구촌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연극 ‘다름이와 틀림이’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9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진행한다. 손 인형과 탈 인형이 합쳐진 복합극으로, 문화 차이에 대한 편견을 좁히고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연극이다.

정왕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더 많은 어린이가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하계 다문화 프로그램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http://lib.siheung.go.kr>)에서 6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031-310-5182 송하성 기자

정왕어린이도서관 하계 다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일시	진행
지구별 한 가족	초1~2학년 12명	6.26.~7. 31. / 매주 수 15:00~17:00 / 6회	김윤경
다문화 연극 '다름이와 틀림이'	유아, 초등 50명	7.29.(월) 14:00~14:50 / 1회	극단씨앗
푸드아트와 만난 지구촌 문화유산 여행	초1~2 12명(오전) 초3~6 12명(오후)	8.5.~8.8. / 월~목 9:20~11:20 / 4회 11:30~13:30 / 4회	조은옥

○ 접수일시

- 지구별 한 가족: 6.3.(월) 오전 10시~선착순

- 다문화연극/푸드아트와 만난 지구촌 문화유산 여행: 7.1.(월) 오전 10시~선착순

○ 접수방법: 시흥시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마당>문화강좌>'정왕어린이도서관' 선택

○ 수업장소: 정왕어린이도서관 유아자료실 및 강의실(지혜샘)



문의: 031-310-5182